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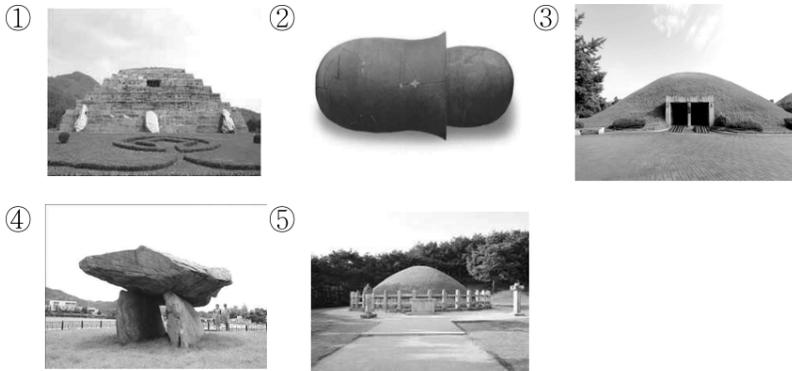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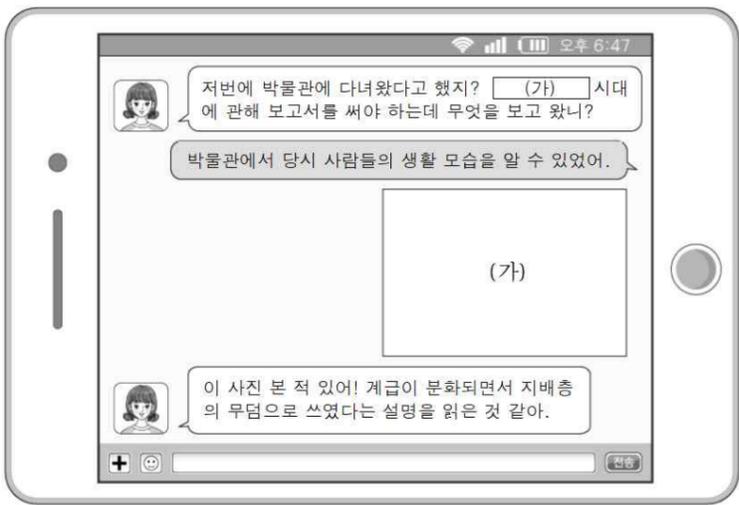
제 4교시

한국사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본 시험지는 2018 개정 세계사 교육과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본 시험의 저작권은 늘잠이에게 있으며 무단 복사 및 배포는 엄정히 금지됩니다.

1. 가상 대화방에서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적절한 것은?



2. 다음 풍습이 나타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본디 오족이 있으며 연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루부이다. 본래는 연노부에서 왕이 나왔으나 점차 미약해져 지금은 계루부에서 왕위를 차지하고 있다. ... 왕의 종족으로 그 대가는 고추가라 하는데, 연노부는 본디 국주였으므로 지금은 비록 왕이 아니나, 적통대인은 고추가라 칭할 수 있으며 또한 종묘를 세우고 영성과 사직에 제사를 지낼 수 있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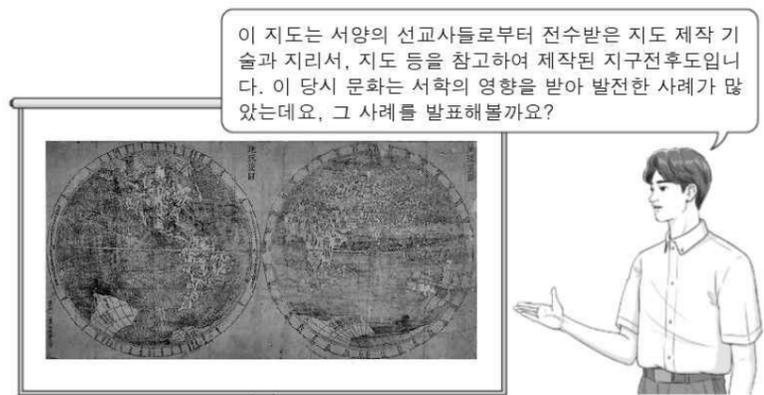
- ① 천군이 소도를 관리하였다.
- ② 제천 행사인 동맹을 개최하였다.
- ③ 가족이 죽으면 공동 무덤을 만들었다.
- ④ 전국을 사출도로 나누어 총독을 파견하였다.
- ⑤ 마을의 경계를 침범하면 노비나 우마로 변상하였다.

3. 밑줄 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일제가 조선을 병합한 직후 조선인을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삼엄한 감시 속에 통제하는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탄압에도 전국적으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운동이 일자 일제는 무단통치에 한계를 느꼈다. 그리하여 제3대 조선총독부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는 문화통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 ① 신간회의 지원을 받았다.
- ② 을미사변을 계기로 일어났다.
- ③ 기미 독립 선언서가 낭독되었다.
- ④ 순종의 인산일에 맞추어 전개되었다.
- ⑤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에 반대하였다.

4. 교사에 물음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신여성이 등장하여 모더니즘을 유행시켰어요.
- ② 양나라의 영향을 받아 벽돌무덤이 건설되었어요.
- ③ 정약용이 이슬람 기술을 본받아 거중기를 개량했어요.
- ④ 목조 건물이 주심포 양식에서 다포 양식으로 바뀌었어요.
- ⑤ 라마 불교의 영향을 받아 경천사지십층석탑이 건립되었어요.

5. 밑줄 친 '내가 실시한 개혁 정책'으로 옳은 것은?

요즘 삼정의 문란하여 백성들의 부담이 커져만 가고 있다고 들었다. 어린 왕을 대신하여 내가 백성들을 위해 환곡의 폐단을 시정해야 할 필요성을 체감했다. 환곡은 관리들이 고리대를 부과하거나 환곡을 강요하는 늑대를 행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그리하여 전국에 사창을 설치하여 환곡미를 관리하고 진휼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 ① 신분제를 혁파하였다.
- ② 비변사를 폐지하였다.
- ③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 ④ 기인 제도를 실시하였다.
- ⑤ 도평의사사를 설치하였다.

6. (가), (나) 자료를 활용할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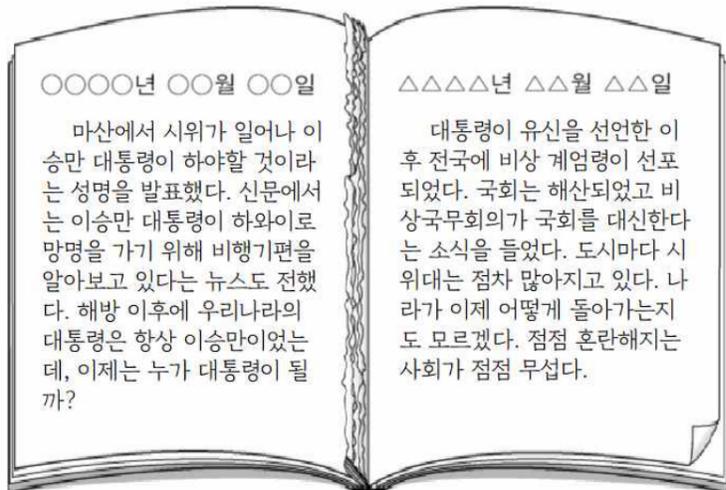
(가) 이자겸이 다른 성씨가 비가 되어 권총이 나누어질까 두려워 하여 셋째 딸을 왕비로 맞이해 줄 것을 억지로 청하자 왕은 부득이 따랐으며 ... 뒤에 또 넷째 딸을 왕에게 바쳤다. 이자겸이 사사로이 그의 부주부인 소세청을 송에 보내어 표를 올리고 토산물을 진상했는데 스스로 지군국사라 칭했다.

- 『고려사』 -

(나) 문무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에게는 음서의 자격이 부여되었다. 음서의 수혜자는 아들, 수양자, 손자, 사위, 외손자, 조카, 외조카, 동생 등 3촌 이내의 내외 후손 및 방계 친족을 망라하였다. 이들은 관인의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관인이 되기 위한 소양을 교육받고 관인으로서의 자질을 일찍이 갖추 수 있었다.

- ① 사림의 성장과 서원의 발달
- ②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의 대립
- ③ 빈공과에 진출한 6두품 세력
- ④ 성리학의 도입과 신진 시대부 등용
- ⑤ 문벌 귀족의 성장과 문벌 사회의 형성

7. 다음 일기장에 찢어진 부분에 들어갈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4·13 호헌 조치가 선포되었다.
- ② 5·18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었다.
- ③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었다.
- ④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 ⑤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이 전개되었다.

8. (가) 전쟁의 결과로 적절한 것은?

지하철역을 따라 떠나는 역사 여행



> 지하철 2호선 - 낙성대역

> 관련 사건 : 전쟁

> 역사 포인트!

낙성대는 별이 떨어진 곳이라는 뜻으로, 고려 전기 무공을 세운 강감찬이 태어난 곳이다. 그는 귀주성에 서 고려를 침입한 거란군을 물리쳐 민족 영웅으로 평가받는다.

- ① 통신사가 파견되었다.
- ②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 ③ 4군과 6진을 개척하였다.
- ④ 팔만대장경이 조판되었다.
- ⑤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되었다.

9. 밑줄 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은병(활구)이 유통되었다.
- ② 방곡령 사건이 발생하였다.
- ③ 후시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 ④ 청 상인이 조계지에서 활동하였다.
- ⑤ 벽란도에서 청자와 칠기가 수출되었다.

10.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이찬 이사부가 아뢰기를, “국사란 군신의 선악을 기록하여 포편을 만대에 보이는 것이니 역사를 꾸며 두지 아니하면 후세에 무엇을 보고 알겠습니까.” 하니, 왕이 그렇다고 여겨 대아찬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널리 국사를 꾸미게 하였다. - 『삼국사기』 -
- 9월, 고령의 대가야가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이사부에게 명하여 토벌케 했는데, 사다함이 부장이 되었다. - 『삼국사기』 -

- ① 화랑도를 정비하였다.
- ②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 ③ 주자감을 설치하였다.
- ④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 ⑤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11. (가) 국가에 관한 탐구 주제로 적절한 것은?

한국사 인물 카드



이름: 유길준 (1856~1914)

저서: <서유견문>, <대한문전> 등

활동 내용 연표

1881 - 조사시찰단에 합류

1883 - 보빙사에 합류해 (가) 유학

1894 - 김홍집 내각에 참여, 단발령 추진, 태양력 사용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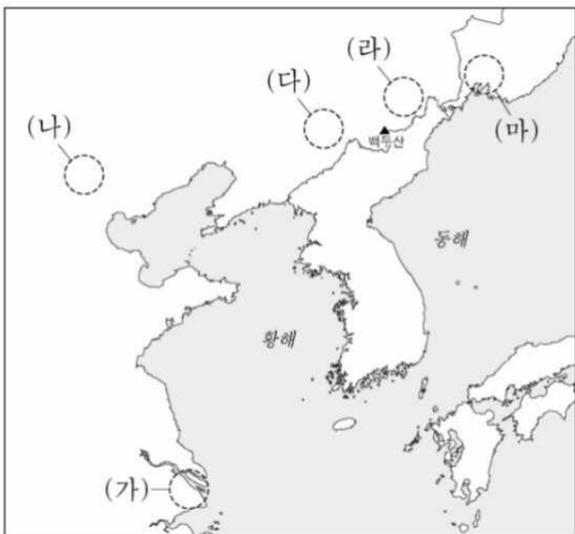
1909 - 안창호와 함께 흥사단 조직

1910 - 한일합방 무효 시위 지도

- ① 조선공산당의 활동을 지원한 국제적 노력 엮이기
- ② 양헌수 부대가 활약한 정족산성 전투의 전개 양상
- ③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중심으로 보는 신미양요의 배경
- ④ 대한매일신보 영문판에 실린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평가
- ⑤ 윤봉길의 의거를 계기로 임시정부를 지원한 정당의 속마음

12. 밑줄 친 '이 지역'을 지도에서 찾아 고른 것은?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는 봉오동 전투에서 활약한 대한독립군과 합해져 이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김좌진이 이끈 제1제대와 이범석이 이끄는 제2제대가 청산리 백운평 고개에 매복하였다. 일본군이 고개 안으로 들어오자 제1제대와 제2제대는 일제를 향해 일제히 공격하였고, 격렬한 교전을 거듭한 뒤에 대승을 거두었다.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마)

13. (가) 기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수령을 보좌하였다.
- ② 물가를 조절하였다.
- ③ 빈민을 구제하였다.
- ④ 질병을 치료하였다.
- ⑤ 실록을 편찬하였다.

14.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이승만이 합리적 합의에 인한 문제 해결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현상 유지론을 고수하면서 (가)을/를 둘러싼 문제는 더욱 꼬여만 갔다. 그러자 미국에서 활동하던 박용만이 상하이로 건너와 군사통일회의를 열고 (가)에 모든 독립 운동 단체가 참가하는 통일전선체를 결성하라는 과제를 부여하였다. 이에 창조파와 개조파가 나뉘어 국민대표회의를 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 ① 사사오입 개헌을 단행하였다.
- ②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하였다.
- ③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하였다.
- ④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 ⑤ 연통제를 거쳐 국내와 연락을 도모하였다.

15. (가) 전쟁의 결과로 옳은 것은? [3점]

<삼전도: (가)의 기억> 스토리보드

*** S# 67 남한산성 지화문**

청나라 장수 용골대가 군대를 이끌고 지화문 앞에 주둔하여 말한다. "당장 문을 열어 대청에 머리를 조아려 충성을 다하라!" 그러자 남한산성 성주가 콧방귀를 끼며 말한다. "전하와 조정 대신이 이곳에 있으니 성문을 열려면 우선 나를 죽여라!" 하며 크게 경고한다.

- ① 쌍성총관부가 설치되었다.
- ② 조·명 연합군이 결성되었다.
- ③ 조선 중립화론이 제기되었다.
- ④ 고구려 부흥 운동이 진압되었다.
- ⑤ 청과 조선이 군신 관계를 체결하였다.

